

뜨거운 환호·성난 팬심... 명암 갈린 KIA 가족한마당

예매 전쟁 뚫은 팬 1000명 입장
선수 만남·사인회 등 즐거운 시간
'베테랑' 임창용 방출 통보 논란
경기장 밖 김기태 감독 퇴진 시위



지난 27일 광주 북구 기아 챔피언스필드 앞에서 KIA 타이거즈 임창용 선수 방출 결정에 반발한 팬들이 김기태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호랑이 군단'의 명암이 엇갈렸던 긴 하루였다. 지난 27일 챔피언스필드가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이날 챔피언스필드에는 KIA 타이거즈 선수단 전원과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팬들이 모여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2018 호랑이가족 한마당'을 열었다.

'예매 전쟁'을 뚫고 행사 티켓을 얻은 1000명의 팬으로 뜨거웠던 경기장. 하지만 경기장 밖의 온도는 달랐다. 이날 챔피언스필드 앞에서는 임창용 재계약 불발 등에 반발한 50여 명의 팬들이 김기태 감독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비까지 오라기락하면서 날씨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일단 이날 준비된 호랑이가족 한마당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팬 사인회 일정으로 시작된 행사에서 선수단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주장 김주찬은 "여기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 많은 기아 팬들이 야구장에 오셔서 많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덜 나쁘고 생각한다. 죄송하다"며 "내년에는 더 높은 곳으로 가서 호랑이가족 한마당에 더 많은 팬 모셔놓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준비를 잘하겠다. 오늘 즐겁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주찬의 바람대로 행사장을 찾은 팬들은 KIA



2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1000여명의 팬들이 모인 가운데 '2018 호랑이가족 한마당' 행사가 펼쳐졌다.

선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군 전력 선수들과 2019 신인 선수들이 팬들 앞에서 인사를 올리며 내년 시즌 선전을 다짐했고, 최형우-양현종-김선빈-안치홍 등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도 단상에 나와 팬들이 보내준 질문에 재치있는 답변을 하며 박수를 받았다.

장기자랑 시간도 흥겨웠다. '북면 가왕' 컨셉으로 진행된 장기자랑 시간에 포수 한승택과 투수 임기준은 깜짝 노래 실력을 선보였고, 지난해 팬 페스트 무대에서 파격적 무대 매너로 자신의 이름을

어필했던 '고졸 2년 차' 유승철은 이번 무대에서 1위를 차지하며 50만원의 상금과 오카사행 비행기 티켓을 획득했다.

함께 남평열차를 부르면서 행사를 마무리한 선수단과 팬들은 하이파이브를 하며 내년 시즌을 기약했다. 선수단은 경기장 3층 콘코스에 길게 늘어서 행사장을 찾아준 팬들과 일일이 손을 맞추면서 배움을 했다.

하지만 KIA 김기태 감독과 구단은 또 다른 팬심에도 직면했다.

이날 곳은 날씨에도 일찍부터 팬들이 챔피언스필드 앞에 모여 구단 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펜딩 챔피언'으로서는 부족했던 5위라는 성적과 과정, 마운드 변칙 운영 등에 대한 불만이 임창용의 재계약 불발로 정점을 찍은 것이다.

기록 많은 시즌을 보내며 내내 팬들의 아쉬움을 샀던 KIA는 '최고참' 임창용과의 계약 정리 과정에서 성공하고 배려 없이 움직이면서 많은 이들에게 생채기를 남겼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기태 감독은 이날 퇴진 시위 현장을 찾아 모임 대표 3명과 면담을 하기도 했지만, 많은 팬들의 비판 어조는 여전하다.

지난겨울 'V11'을 기념하는 우승 행사를 갖고 한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타이거즈를 연호했던 팬들은 1년 만에 전혀 다른 표정과 다른 목소리로 쓸쓸한 가을을 보내고 있다. 지난 1년을 뼈아프게 돌아봐야 하는 KIA의 스토브리드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치홍 "내년엔 더 큰 나눔 실천하겠습니다"

올 시즌 안타·도루 적립금 522만원 어린이 재단에 기부

KIA 타이거즈의 안치홍이 더 큰 나눔을 약속했다.

안치홍은 지난 2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8 호랑이가족 한마당'에서 구단 지정병원인 밝은안과21병원과 함께 적립한 522만원을 어린이 재단에 기부했다.

1안타 및 1도루당 각각 2만원을 적립하고 있는 안치홍은 올 시즌 169개의 안타와 5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348만원을 채웠다. 밝은안과21병원도 1안타 및 1도루당 1만원씩 보태면서 522만원이 만들어졌다.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안치홍의 나눔이다

안치홍은 서울고를 졸업하고 KIA에 입단한 지난 2009년 '1안타 1도루 후원 협약'을 맺고 나눔을 시작했다. 지난 2013년에는 자청해 적립 금액을 2만원으로 올린 안치홍은 경찰청에서 복무하던

2015년과 2016년도 각각 200만원을 기부하면서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

안치홍은 "나도 많은 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만큼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또 스스로에게도 더 좋은 성적을 내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야구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언급했다.

또 안치홍은 "올 시즌에는 도루를 많이 하지 못했다. 내년 시즌에는 도루를 대신해 타점 등 다른 기록으로 기부금을 적립할 생각이다. 좋은 성격으로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KIA타이거즈 안치홍선수 1안타 1도루 후원금 전달

정진산업스카이 vs 에프나인 최후 승자 누구

무등기 광일리그 결승 진출팀 확정

지역 명품 사회인야구대회 '무등기' 광일리그의 정상을 다룬 '최후의 두 팀'이 확정됐다.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하는 제8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광일리그 준결승전이 지난 27일 광주야구 야구장에서 열렸다.

정진산업스카이라 에프나인이 각각 승리를 거두면서 무등기 정상을 향한 마지막 도전을 펼치게 됐다. '스카이 야구단'으로 20년의 시간을 보낸 정진산업스카이는 파트너스를 5-2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2회 먼저 2점을 뽑은 정진산업스카이는 3회에도

1점을 보이며 3-0의 리드를 잡았다. 정진산업스카이는 4회말 2실점을 했지만 4회 1사 만루에 등판한 김준석의 연속 삼진으로 역전 위기를 넘겼다. 정진산업스카이는 이어 6회 2점을 더하면서 승기를 굳혔다.

저스티스와 에프나인의 팽팽했던 힘겨루기에서는 행운의 여신이 에프나인의 손을 들어줬다.

1회말 공격에서 2점을 먼저 뽑아낸 에프나인은 2회 수비에서 2-3 역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에프나인이 3회말 3점을 뽑아내며 다시 리드를 가져왔다.

저스티스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4회초 저스티스도 3점을 만들며 재역전극을 펼쳤다. 하지만 4회말 에프나인이 승부를 6-6 원점으로 돌렸고, 5회 시간제한으로 경기가 중단됐다.

승부를 가리는 추첨이 진행됐고, 에프나인은 기

분 좋은 추첨결과 함께 활짝 웃었다. 2013년부터 무등기에 개근하고 있는 에프나인은 2018년 가을 마침내 무등기 정상에 도전하게 됐다.

한편 내달 13일에는 무등기 결승행 티켓을 놓고 쏘울스토리와 타요바리스타즈, 태평법률사무소와 카멋진님이 한판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무등기 6주차 전적 (광일리그 준결승전)

◆1경기 정진산업스카이 021002X-5

파트너스 000200X-2

▲승리투수 : 최홍준

◆2경기 (5회 시간 제한)

저스티스 03030X-6

에프나인 20310X-6 (추첨승)

SK, 코리안 시리즈 진출 1승 남았다

PO 2차전 넥센에 5-1 승

SK 와이번스가 6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을 향한 8부 능선을 넘었다.

SK는 28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2차전에서 결정적일 때 터진 홈런 3방과 불펜의 무실점 역투를 발판삼아 넥센 히어로즈를 5-1로 물리쳤다.

1차전에서 박정권의 끝내기 홈런으로 극적인 10-8 승리를 따낸 SK는 2연승을 달려 1승만 보태면 2012년 이래 6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오른다.

역대 5전 3승제로 치러진 28번의 플레이오프에서 1·2차전을 모두 따낸 팀이 한국시리즈에 진출

한 경우는 14번 중 12차례(85.7%)에 달한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플레이오프를 거쳐 PO에 진출한 정규리그 4위 넥센은 벼랑 끝에 몰렸다.

SK 토탈타 김강민은 1-1로 맞선 5회 전세를 뒤집는 중월 솔로포를 터뜨렸다. 이재원은 2-1로 앞선 6회 좌중간 담을 넘기는 투런포로 넥센 선발 에릭 해커를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최정은 7회 이번 시리즈 두 번째 홈런인 좌월 솔로포를 날려 췌기를 박았다.

양 팀은 30일 오후 6시 30분 넥센의 홈인 서울고척 스카이돔에서 PO 3차전을 벌인다. 선발 투수로는 박종훈(SK)과 한현희(넥센)가 나설 전망이다.

/연합뉴스